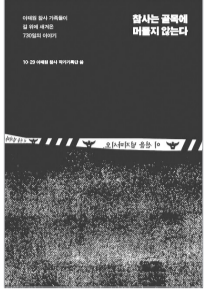


'안전한 사회' 바라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외침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작가 기록단 지음



"...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경찰도 역을한데, 왜 아이들 탓을 하며 또 상자를 쥐요? 왜 희생자와 유가족이 변명을 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어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하는 일 아닌가요?" (故 김진 씨 어머니 임영주 씨)

"...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어처구니없이 떠나보낸 것도 억울한데, 왜 아이들 탓을 하며 또 상자를 쥐요? 왜 희생자와 유가족이 변명을 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어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하는 일 아닌가요?" (故 김진 씨 어머니 임영주 씨)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았다.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지하철 이태원역 인근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외국인 14개국 26명 포함)이 숨지고, 195명이 다쳤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고'였지만 경찰과 행정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생긴 대형 참사였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은 도보행진과 삼보일배, 오세득지, 삭발, 단식투쟁 등을 펼쳐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년 6개월 만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10·29 이태원참사 작가 기록단이 최근 부모세대 유가족 25명의 목소리를 담은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를 펴냈다. 기록단은 참사를 둘러싼 고통의 이야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참사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7일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제'.

기를 듣는 이유에 대해 "재난으로 삶이 부서진 이들이 사회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에 잘 응답하기 위해서는 재난이 끼친 피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회복을 이해할 실마리가 손에 쥐어진다"고 밝힌다.

어처구니없는 이태원 참사로 사랑스런 아들·딸을 잃은 유가족들의 육성은 독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더구나 참적(慘賊·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의 아픔을 겪은 부모들은 국가 기관의 책임 회피, 영정·위패 없는 분향소 설치와 마약 부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유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정부의 행정 처리에 더욱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한다. 한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호주와 이란 등 외국인 부모들의 심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란에서 온 고(故) 알리 파라칸드 씨 고모 마흐나즈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해서 외국인 유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한국 정부가 사후 조치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길 원해

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참사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재난 참사의 경험이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는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년 사이 4·16 세월호 참사(2014년)와 10·29 이태원 참사(2022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년) 등 사회적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유가족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라는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을에 재재질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외침 속에 잇따르는 사회적 참사를 막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제

시돼 있다.

〈창비·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운 책

▲통곡하고 싶었지만=1950년생 엄마 순희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 쓴 육아 일기 모음집. 1975년 10월 시작된 일기는 둘째 아들인 형수를 낳은 날을 회상한다. 아이는 거꾸로 태어났으며 불길한 예감은 적중,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저자는 힘 있는 모성을 기반으로 그날 이후 매일 용기를 냈고 부산에서 하루하루를 영화처럼 보냈다. 형수를 특수학교 대신 일반 학교에 보내거나 운동회, 소풍에 동참했던 일화 등 영화 같은 기억을 풀어 놓는다. 〈빨간소금·1만8000원〉

▲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최저저급(당시 월 141만원)을 받으면서 4년 2개월 만에 1억을 모은 스톡네 살 꼭 지원 씨. 그녀는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최연소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6살에는 다시 1억 원을 추가로 모아 다양한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프로 '잔테커'로 살았던 이유부터 돈을 불렀던 파이프라인들, 자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콘돈을 될 수 있던 방법 등을 소개한다. 〈생각지도·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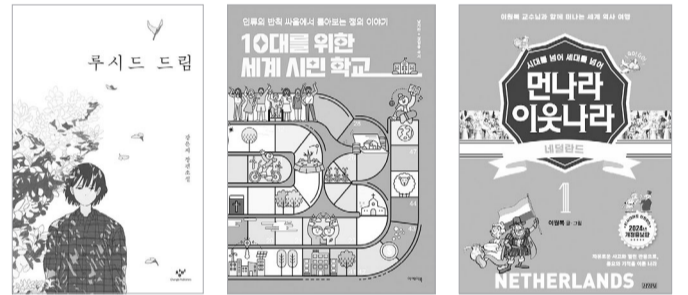
▲101 민주주의=민주주의의 탄생에 얽힌 101가지 키워드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근대국가 헌법과 인권법의 기초였던 마그나카르타,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신호탄 격인 명예혁명과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웠던 프랑스 혁명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도 시의하는 바가 있다. 프랑스를 바꿨던 드레퓀스, 현대 중화민국의 견인차 구실을 한 신해혁명,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크빌 등 비교적 덜 알려진 민주주의의 개념을 언급한다. 〈푸른들녘·1만8000원〉

▲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대량 학살인 제노사이드의 개념부터 정의를 새롭게 구성하고, 현대 사회의 극단적 폭력 양상과 이를 연결한다. 민간인 집단에 대한 파괴적인 행위나 정치적 집단의 알력 발휘 등도 제노사이드라는 주장을 펴다. 사회학에서 논쟁적인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 문제, 민족 청소와 플러티사이드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학살'을 살살이 분석한다. 〈푸른역사·2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루시드 드림=어른들이 사라졌다. 정확한, 어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흉주네 부모님도 운사네 부모님도 모두 잠이 들어버렸고 청소년들은 방황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어른만 잠드는 이 현상이 바이러스 때문이라 분석한 뒤 이를 '꿈 바이러스'라 명명했다. 멈춰버린 뒤 광기에 휩싸인 세계 속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주인공들의 성장기를 담았다. 〈창비·1만5000원〉

▲10대를 위한 세계 시민 학교=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부 시민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이들이 겪는 불행과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사회 구조적 간주, 진정한 '정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환경, 어린이인권, 양성 평등, 경제, 민족과 인종, 종교 등 시의적 문제를 다룬다. 〈이케이북·1만7000원〉

▲넌나라 이웃나라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1 : 네덜란드=40년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넌나라 이웃나라' 시리즈가 개정증보판으로 출간됐다. 최근 세계정세 및 국제질서를 반영, 새롭게 드러난 지형도를 반영했다. 저자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작성한 각 나라별 하이라이트를 부록으로 추가, 지역과 국가별 핵심을 정리했다. 〈김영사·1만4000원〉

'망한 삶'의 주인공들, 그래도 희망이 느껴진다

조금 망한 사랑

김지연 지음



이제 첫 작품을 낸 작가에 게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의 애정과 인정은 큰 힘이 된다. 김지연 작가가 지난 2022년 펴낸 첫 소설집 '마음에 없는 소리'는 그 해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2위에 선정됐다. 당시 1위는 김연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김지연 작가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쓴 신작 9편을 담은 두 번째 소설집 '조금 망한 사랑'을 펴냈다. 보통 수록작 중 한편을 책 제목으로 삼는 것과 달리 이번 소설집 제목 '조금 망한 사랑'은 책에 실린 작품은 아니다. 대신 김 작가를 '망한 인생의 천재'라고 칭한 권희철 평론가의 말처럼,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망한 삶'이라고 보기 딱 앞맞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그의

작품 세계와 어울리는 제목이다. '조금'이라는 단어에서는 작지만, 꼭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느껴지고, 책 속 인물들에게도 그런 기운을 발견하게 된다.

흥미로운 작품은 올해 젊은 작가상 수상작이기도 한 '반려빛'이다. 주인공은 '거의 매 순간 돈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현. 서일과의 긴 연애 끝에 남은 1억 6000만원은 반려동물인 고양이나 개처럼 그의 '반려 빛'이 됐다. 꿈 속에서 정현은 반려빛과 산책을 한다 (물론 목줄을 권 쪽은 빛이다). 빛을 다 갖고 난 며칠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반려빛이 짐을 싸 떠나자 정현은 "꿈에서 마냥 출가분했고 깨어서도 그랬다. 마침 내 0이 된 기분.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상하게 무섭기만 해서 그저 0인 채로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된다.

사랑의 감정은 묘하다. 몇년 만에 다시 나타난 서일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했어. 나는 이제 사람도 잘 못 믿고 의심부터 해. 뒤뜰수치고 도망가지 않을 까 하고"라며 화를 내지만 또 미련처럼 남아 있는 사랑의 한 조각을 느낀 채 갈팡질팡한다.

최근작 '좋아하는 마음 없애'는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남편과 헤어지며 양육권을 포기하고 집을 나온 안지에게 남편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10년 만에 걸려온 전화는 남편의 사망과 함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안지에게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청한다.

제목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경기 지역 밖에서 사랑'은 안전관리가 소홀한 일터에서 작업하다 부상을 입고 쉬던 하청업체 현장직 노동자인 상우가 '지방에 사는 청년들의 일과 삶'을 주제로 글을 쓰는 미주에게 동네를 안내하고 인터뷰에 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책에는 그밖에 수능이 끝난 후 삼촌과 함께 유자밭에서 유자를 따고 유자차를 만드는 이야기를 담은 '유자차를 따고 나는 쓰네', 2022년 이효석문학상 우수작 수상작으로 연애가 끝난 후에도 완전히 정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포기' 등의 작품이 실렸다. 〈문학동네·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